

## 학령전 아동의 사람 범주화(person categorization)의 발달

우 남 희

동덕여자 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3세부터 5세 아동들이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 나이와 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또 사람을 분류하기 위하여 이러한 범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한 유아원의 아동을 남녀 비율이 같고 평균 나이가 유사하도록 3, 4, 5세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 연령집단에 24명씩, 총 72명을 선정하였다. 나이와 성에 대한 아동의 이해 발달을 보기 위하여는 지식순서 과제가 사용되었고, 사람분류를 위한 두 범주의 사용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사람분류과제가 사용되었다. 특히, 이 두 범주에 대한 이해의 발달을 통하여 발달심리학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발달의 순서(developmental sequence)와 수평적 처짐(horizontal decalage)의 문제들을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지식순서과제에서는 나이변화(age growth)와 성불변(sex constancy)에 대한 과제를 각기 5단계로 나누어 두 범주에 대한 이해의 발달적 순서를 보았다. 수평적 처짐의 문제를 알아 보기 위하여는, 나이변화과제와 성불변과제에서의 수행능력을 비교하였으며, 환경적 지원에 의한 격차를 알아보기 위하여는, 높은지원 조건과 낮은지원 조건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람분류과제는 주어진 그림들 중에서 아동이 분류할 사람(자신, 어머니, 아버지)과 동일시하는 사람의 그림을 고르게 하여 분류시 어떤 범주를 사용하는가를 보았다. 결과는 아동이 자신을 분류할 때에는 아동의 지식수준과 사용하는 범주 사이에 상관성이 높았으며, 아버지를 분류할 때에는 실험조건과 과제에 따라 부분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를 분류할 때에는 지식수준과 의미있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이들이 색이나 모양등의 자연범주를 알게 되면 주위의 물체들을 이러한 범주로 분류하듯이, 사회범주를 알게 되면 거기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상당히 일찍부터 사람을 어떤 범주로 분류하기 시작하지만, 여기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다(Edwards, 1984; Van Parys, 1983). 지금까지 사람의 분류에 대한 연구는 사람 범주화(person categorization)보다는 사람지각(person perception), 인상형성(impression formation), 성격이론(implicit person-

ality theory)등에서 다루어 졌으며, 자유묘사법을 주로 사용하여 성인이나 국민학교 이상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Bruner (1957)에 의하면 사람은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경험 속의 사물이나 종류에 따라 정보를 해석한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사람지각이란 범주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람에 관한 정보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며, 변할 수도 있고 상충적이기도 하므로 기하학적 도형을 색이나 형태에 따라 분류할 때

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Martin, 1985).

모든 인간은 나이와 성이라는 범주로 분류되어 질 수 있으며, 나이와 성은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특징이므로 어린 아동들이 사람을 구별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Edwards, 1984 ; Lewis & Brooks-Gunn, 1979 ; Kagan, Mount, Hiatt, Linn, Reznick, Richman, & Katz, 1981 ; Van Parys, 1983). 이러한 나이와 성은 자연적 범주인 동시에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사회적 범주이며 사회적 역할이기도하다. 그러므로 어린 아동들이 이러한 사회범주, 역할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에서 규정하는 정의에 따라 정보를 조직하여야 한다(Bem, 1984). Lewis와 Brooks-Gunn(1979)은 어린 아이가 성과 나이에 따라 사람들을 그룹지어 명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어 발달과 표상적 사고가 생기기 시작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며, 7개월 된 아기들도 어른과 아이에게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연구들은 학령전기의 어린 아동들이 아직 나이나 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Piaget(1969)는 4세 아동들이 자신들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알지만 성인들이 점차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모르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Kohlberg(1966)도 아동들의 안정된 성정체감은 7세정도야 발달한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들도 아동이 나이를 먹는 것과 커진다는 것을 혼동하거나 같게 생각한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Edwards, 1984 ; Kratochwill & Goldman, 1973 ; Looft, Rayman, & Rayman, 1972). Kuhn과 그녀의 동료들은(1978) 2세 아동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추구하는 전형적인 성역할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피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3세 아동들은 각 성에 따른 행동범주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4세경 아동들은 거의 완벽하게 사람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고, 성의 불변(gender constancy), 즉 어떤 사람이 옷이나 머리모양을 바꾼다해도 그 사람의 성은 일생동안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Bem(1984)은 아이들이 생식기의 차이를 알고 사회적 단서보다 생식기단서의 우세를 알면 3세 내지 5세에도 정보존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나이와 성의 이해 발달에 대하여는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아동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나이와 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주 어린 연령에는 두가지 면을 동시에 조절할 수 없으므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여기에 대하여 Fischer와 Watson(1981)은 Freud가 말하는 소위 Oedipus complex란 아동이 사람의 나이 차이와 성의 차이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지발달이 이루어져 나이와 성, 두가지 범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되면 이러한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지발달과 연관시켜 사회성발달을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3세부터 5세 아동들이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 나이와 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또 사람을 분류하기 위하여 이러한 범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나이와 성에 대한 아동의 이해 발달을 보기 위한 과제와 사람분류를 위한 두 범주의 사용을 분석하기 위한 과제를 각기 마련하였다. 특히, 이 두 범주에 대한 이해의 발달을 통하여 발달심리학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발달의 순서(developmental sequence)와 수평적 처짐(horizontal decalage)의 문제들을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 발달의 순서

지금까지 발달심리학자들 사이에는 아동들이

실제로 일련의 발달단계를 거쳐 성장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어왔다(Bertenthal, 1981; Fischer & Bullock, 1981; Flavell, 1971; Wohlwill, 1973). Piaget에 따르면, 아동의 사고에는 상당히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 전체적으로 새로운 구조(structure d'ensemble)를 갖추게 된다고 하였다(Fischer, 1981; Gardner, 1983). 이러한 새로운 구조는 한 단계의 특성을 이루게 되고 발달은 이러한 단계들이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이론에서는, 한 인간은 하나의 독특한 발달단계에 속하도록 특징 지워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신피아제 학파들은 발달에는 순서가 있으며, 어떤 능력들은 급작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러 능력들이 동시에 항상 단계처럼 나타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Fischer & Lazerson, 1984).

발달의 순서들은 발달적 변화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발달의 연속성도 보여준다. 발달의 순서를 봄으로서 우리는 주로 언제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 발달이 불연속적으로 보이며, 언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 발달이 연속적으로 보이는지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가지 유형의 행동이 어떻게 점차 다른 유형으로 변하여 가는지도 알 수 있다. 물론 발달의 순서가 측정의 순서일 뿐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Brainerd, 1978). 그러나 Bertenthal(1981)이 주장하듯이, 아동이 항상 측정의 순서가 예측하는 것 처럼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일관성 있게 진보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Fischer(1980)의 인지발달 단계 이론인 기술이론(skill theory)에 따라 학령전 아동의 나이와 성의 이해의 발달을 5단계로 나누어 발달의 순서를 보고자 하였다. 나이에 대한 이해를 보기 위하여는 나이변화 과제를 마련하였고, 성에 대한 이해를 보기 위하여는 성불변과제를 마련하였다. 우선 나이변화과제의 단계들을 보면,

첫단계는 인형을 나 이외의 능동적 주체(active other)로 이해하는 단계이며, 둘째단계는, 나이역할행동(behavioral role)을 이해하는 단계로서 아이나 어른에게 맞는 행동들을 해 보일 수 있고, 셋째단계는 아이나 어른의 역할행동을 다른 역할행동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는 단계(shifting behavioral role)로서 예를 들면, 어른의 행동과 연관시켜서 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이며, 넷째단계는 나이변화의 한 측면의 변화(one-dimensional change for age growth)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이며, 다섯번째 단계는 나이변화에서의 여러측면의 변화(multi-dimensional changes for age growth)를 이해하는 단계이다. 성불변과제의 5단계는 나이변화과제의 단계들과 인지구조가 일치하며, 단지 내용만을 나이변화에서 성불변으로 바꾸어, 아이와 어른 대신에 여자와 남자의 역할을 이해하며 여러가지 변화가 있어도 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 수평적 처짐

Piaget는 모든 사람이 다 거치는 발달의 보편성을 가정하고 발달의 단계를 설정하여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은 여러가지 면에서 그 단계의 사고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람영속성과 대상영속성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현상을 수평적 처짐이라고 하였지만,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Piaget & Inhelder, 1974; Fischer, 1980). 신피아제 학자들은 아동을 어떤 특별한 단계에 있는 존재로 설명하지 않고 아동의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발달의 어떤 수준에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수평적처짐의 현상을 설명하려 한다(Case & Khanna, 1981; Fischer, 1980; Gardner, 1983). 신피아제학자 중의 한 사람인 Fischer(1980)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의 기술은 학습을 하는 상황에 따

라 다르다고 하였다. 그는 아동의 여러 기술들은 한번에 하나씩 정교화 되는데 이 정교화란 아동이 새로운 요인들을 조절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환경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기술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기술이 발달되었다고 또 다른 기술이 저절로 발달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수준에 연관된 기술들이 동시에 발달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발달이란 원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한 아동은 모든 기술에 있어서 동일한 수준을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Fischer는 비동일성, 즉 수평적 처짐을 발달에 있어서 예외로 보지 않고 규칙으로 간주한다. 그는 또한 아동의 능력을 최저수준과 기능수준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바, 능력이 습득되는 상황 뿐만 아니라 능력이 측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행동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달적 격차가 나이와 성 개념의 발달에서도 일어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두 영역에 대한 발달 순서를 비교하였다. 환경적 지원에 의한 격차를 알아 보기 위하여는 높은 지원 조건과 낮은 지원 조건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 사람 범주화

어린아이들은 복잡한 사회 속에서 자라면서 점차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들을 적절한 사회범주 속으로 집어 넣으려고 한다. 그러나 사회는 복잡하고 사람에 대한 정보는 단순하지 않으므로 아이들이 사람을 사회범주화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Livesley와 Bromley(1973)는 사람에 관한 복잡한 정보를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으며, 지엽적이고 외형적인 면과 중심적이고 심리적인 면으로 분류를 하였다. 지엽적이고 외형적인 면은 외모라든가 이름, 나이, 성,

일상의 습관, 소유물등을 가르키고, 중심적 심리적인 면은 성격이라든가, 동기, 가치, 태도등을 가르킨다고 하였다.

그동안 자유서술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사람 지각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아이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관찰 가능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하여 더 많은 언급을 하지만, 아이들이 8세경이 되면 사람들의 외형적이고 구체적인 면에서부터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면으로 관심을 돌린다고 하였다 (Pratt, 1975; Yarrow & Campbell, 1963). 이와 같이 아이들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사람에 대한 지각도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바, Pipp등의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이 사람을 지각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여 사람을 주체로서 볼 때에는 자신에 대한 지식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지식보다 더 빨리 발달하지만, 대상으로 생각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자신에 대한 지식보다 더 빨리 발달한다고 하였다 (Pipp, 1987; Watson and Fischer, 1977).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자신이 주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들의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빨리 발달하지만,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보다는 부모를 더 빨리 알아차린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누구에 대한 지식이 더 빨리 발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는 특정한 과제나 기술영역에 한정하여야 한다 (Harter, 19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이와 성이라는 두 영역에 관하여 세 사람, 즉 아동자신과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사람의 범주화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모든 사람은 나이와 성을 가지고 있지만, 학령전 아동들은 자신들이 사람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신과 어머니 아버지를 다른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이 자신을 분류할 때에는 부모와의 나이차이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범주를 더 많이 사용하지만, 부모를 분류할 때에는 부모의 성차를 더 의식할 수도 있

으므로 성범주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나이범주와 성범주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 그 사용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되었다.

- 가설 1. 학령전 아동의 나이와 성에 대한 이해는 예측할 수 있는 순서를 거쳐 발달할 것이다.
- 가설 2. 아동은 나이와 성에 대한 이해에서 유사한 발달적유형을 보이지만, 두 개념의 발달에는 수평적 차집이 나타날 것이다.
- 가설 3. 아동은 아동 자신의 연령과 성에 따라, 그리고 분류할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범주를 사용하여 사람을 분류할 것이다.
- 가설 4. 아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하나의 범주를 일관성있게 사용하여 사람을 분류할 것이다.
- 가설 5. 나이와 성범주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 사용은 서로 상관이 있을 것이다.

## 방 법

### 피험자

피험자는 서울에 살고 있는 중류층 아동들로서 Y대학교 부속 어린이 생활연구원에 다니는 110명의 아동들 중에서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72명이 선정되었다. 피험자의 연령은 3세, 4세, 5세의 세그룹으로 나누었으며, 각 연령집단의 남녀의 평균나이가 유사하도록 남녀 각 12명씩 피험자를 선정하였다(3세 집단은 남, 녀 모두 평균연령이 3년 5개월, 4세 집단은 남아 평균연령이 4년 6개월, 여아 평균연령은 4년 5개월, 5세 집단의 남아 평균연령은 5년 5개월이며, 여아 평균연령은 5년 4개월이었다).

### 연구 설계

아동의 나이와 성에 대한 이해의 발달을 보기 위하여 사용된 변인들은 아동의 연령(3), 성(2), 실험순서(2), 과제(2), 그리고 실험조건(3)이었다.

피험자간의 변인들은 연령, 성, 그리고 실험순서였으며, 피험자내의 변인들은 과제와 실험조건이었다. 사람을 나이와 성에 따라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사용된 변인들은 아동의 연령(3), 성(2), 분류대상(3)이었다. 피험자간의 변인들은 연령과 성이었으며, 피험자내의 변인은 분류대상이었다.

### 도구 및 설비

나이와 성에 대한 아동의 이해 발달을 보기 위하여 지식순서과제(knowledge-sequence task)가 마련되었고, 사람분류를 위한 두 범주의 사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람분류과제(person-identification task)가 마련되었다. 지식순서과제는 Fischer(1980)의 기술이론에 의거하여 Van Parys(1983)가 개발한 나이변화과제(age growth sequence)와 성불변과제(sex constancy sequence)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개작하여 사용하였다. 두 지식순서과제는 각 과제마다 5단계가 설정되었으며, 대응하는 단계끼리 인지기조상 복잡성이 대등하도록 하였다. 5단계의 각 단계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단계가 올라 갈수록 이야기의 내용이 더 복잡하게 하였다.

이 지식 순서과제는 세가지의 실험 조건에서 실시하였는데, 첫째는 유도모방 조건으로서, 우선 쉬운 단계부터, 아동으로 하여금 실험자가 인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잘 지켜 보게 한 후, 아동 자신이 본 것을 다시 재현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조건은 자유 놀이로서, 두가지 지식순서 과제가 모두 끝난 후, 두 과제에서 사용되었던 인형들과 놀이감을 모두 주고, 아동 혼자 5분동안 인형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서 놀도록 하였다. 세번째 조건은 최선의 이야기 조건으로 자유놀이 후, 자유놀이 시간동안 아동이 만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사람분류과제는 아동이 자신, 어머니, 아버지를

범주화할 때 나이에 따라 분류하는지 성에 따라 분류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분류할 대상과 나이가 대조되는 사람, 성이 대조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여 주고, 그 중에서 한사람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아동이 아버지를 분류할 때는 남자아동과 여자 성인이 함께 있는 그림을 보여 주고,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사람을 둘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하여, 만일 아동이 남자 아동을 선택할 경우에는 성범주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였고, 여자 성인을 선택하면 나이 범주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을 하였다. 우연에 의한 선택을 배제하기 위하여 한 분류대상에 대하여 5장의 그림을 마련하여 5회에 걸쳐 반복 실시하였다.

나이의 성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부모들이 보고 있는 아동의 나이와 성에 대한 이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보충자료로서 부모 설문지도 마련하였다.

#### 측정 절차

피험아동들을 유아원 시간 중 한사람씩 다른 건물에 있는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와서 이틀에 걸쳐 과제들을 실시하였다. 첫째날은 사람분류과제를 먼저 실시하고 나서 지식순서과제 중 나이변화과제나 성불변과제를 각기 한가지씩 실시하였다. 실시 순서에 의한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피험자의 반은 나이변화과제를 첫째날 실시하고 나머지 반은 성불변과제를 첫째날 실시하였다. 둘째날에는 지식순서과제 중 첫째날 하지 않은 과제를 먼저 한 후 오분간의 자유놀이를 실시하였다. 각 아동당 하루에 소요된 시간은 약 25-30분정도로 전체 소요시간은 약 50-60분 정도였다.

지식순서과제는 높은 지원 상황과 낮은 지원 상황에 따른 아동의 행동을 비교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모든 아동들이 높은 지원 상황인 유도모방조건(elicited imitation)과 낮은 지원 상황인 자유놀이조건(free play), 최선의 이야기조건(best story)에서 검사를 받았다.

#### 채점

아동의 모든 행동은 비디오 테잎으로 녹화가 되었으며, 실험 실시동안 세사람에 의하여 점수가 되었다. 실험자와 실험가설을 전혀 모르는 두명의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채점을 하였으며, 대학원생들은 실험실 밖에서 일방경을 통하여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지식순서과제 중 유도모방조건에서의 수행은 각 단계에서 아동이 모방을 제대로 하였는지에 따라 성공여부를 기록하였고, 성공한 단계마다 1점씩을 주어 5단계까지의 성공은 5점으로 하였으며,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실패는 0점으로 처리하여 점수의 분포를 0점부터 5점까지로 하였다. 자유놀이가 조건에서의 수행은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밖에서 관찰하여, 사용한 인형에 따라 성과제인지 나이과제인지를 구분하고 이야기의 단계는 모방조건에서의 이야기에 준하여 단계를 결정하였다. 최선의 이야기 조건에서의 수행은 한가지 이야기만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범주에 따른 구별은 하지 않고 모방 조건에서의 단계에 따라 단계만을 측정하였다.

사람분류과제는 각 분류 대상에 따라 성을 선택하였는지 나이를 선택하였는지를 준비된 체크리스트에 기록하고, 성을 선택하였을 경우 +1점을 주었고 나이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1점을 주어 5회의 점수를 합하여 +5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 분포를 두었다.

## 결 과

본 연구의 결과는 세부분으로 나누어, 첫번째 부분은 지식순서과제의 결과를, 두번째 부분은 사람분류과제의 결과를, 세번째 부분은 두 과제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 지식순서과제

연구결과는 예측했던 5단계의 발달적 순서에 따

라 아동의 나이와 성역할 개념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아동의 반응들을 발달적 단계로 척도화할 수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scalogram분석을 실시하였으며, Green(1956)의 방법을 이용하여 재생지표(reproducibility index)와 일관성지표(consistency index)를 산출하였다. 재생지표는 나이변화단계에서 .989, 성불변단계에서 .997로서 거의 완벽하게 Guttman 척도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와 성역할의 발달이 예측한 5단계에 따라 순서적으로 발달함이 증명되었다. 일관성지표는 나이변화단계가 .904, 성불변단계는 .959로서 각 단계의 과제들이 일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1. 나이변화에 대한 아동의 이해발달

발달양상	나이변화 순서의 단계					피험자수	평균연령
	1	2	3	4	5		
0	-	-	-	-	-	3	3.03
1	+	-	-	-	-	8	3.25
2	+	+	-	-	-	8	3.66
3	+	+	+	-	-	6	4.17
4	+	+	+	+	-	11	4.55
5	+	+	+	+	+	33	5.02
기타	+	+	+	-	+	2	4.29
	+	-	+	+	-	1	5.00
전체						72	

표 2. 성불변에 대한 아동의 이해발달

발달양상	성불변 순서의 단계					피험자수	평균연령
	1	2	3	4	5		
0	-	-	-	-	-	2	2.96
1	+	-	-	-	-	8	3.33
2	+	+	-	-	-	10	3.49
3	+	+	+	-	-	11	4.27
4	+	+	+	+	-	27	4.82
5	+	+	+	+	+	13	5.38
기타	+	+	-	+	-	1	4.17
전체						72	

실제로 두 영역 모두에서 대부분의 아동들은 하위의 쉬운 과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위의 어려운 과제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며, 이 순서에서 벗어난 아동은 나이변화과제에서 3명, 성불변과제에서 1명이었다. (표1과 표2 참조).

이해의 발달에 연령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나이(3) × 성(2) × 순서(2) × 과제(2) × 조건(2) 모델에 의한 반복측정 변량분석 (analysis of variance for repeated measures)을 한 결과, 나이변화과제에서  $F(4,36)=27.02, p<.0001$ , 성불변과제에서  $F(4,36)=55.10, p<.0001$ 로 모두 아동의 연령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두 영역에서 모두 아동들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모방할 수 있는 단계도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Duncan사후검증에서는 나이변화과제에서는 3세(M=1.96)와 4세(M=4.37)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4세와 5세(M=4.71)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불변과제에서는 3세(M=1.79), 4세(M=3.79), 5세(M=4.33)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영역의 과제 모두에서 성차나 순서로 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이개념 발달단계와 성개념 발달단계는 상관이  $r(72)=.83$ 으로서 서로 매우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변화과제에서 높은 발달 수준을 보인 아동은 성불변과제에서도 높은 이해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나이변화과제의 점수가 세 연령 집단에서 모두 성불변과제보다 점수가 높았다. 즉, 아동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두 역할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이변화에 대한 이해가 성불변에 대한 이해보다 빨리 발달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나이 × 성 × 순서 × 과제 모델의 반복변량분석을 하였다. 조건의 영향이 현저했으므로, 두 영역을 모방조건과 자유놀이조건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결과는, 자

유놀이조건에서는 나이변화 이해와 성불변 이해에 별 발달적 차이가 없었으나, 모방조건에서는  $F(1,63)=9.89, p<.003$ 로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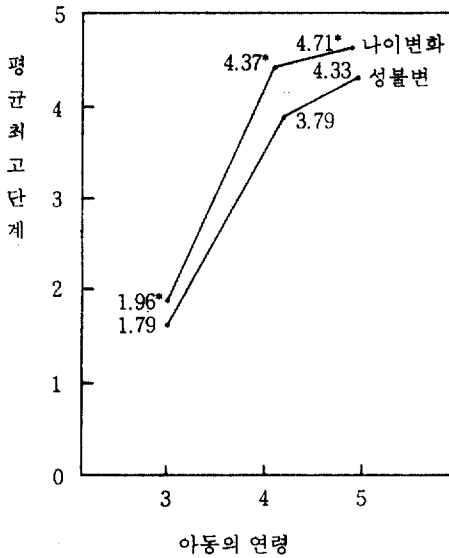


그림 1. 나이변화에 대한 이해의 발달 양상(모방조건)

표 3. 아동의 연령과 최고 단계와의 관계

	평균연령			평균
	3	4	5	
나이변화 (모방)	1.96	4.37	4.71	3.68
성불변 (모방)	1.79	3.79	4.33	3.31
나이변화 (자유놀이)	1.30	2.18	2.71	2.23
성불변 (자유놀이)	1.27	2.53	2.81	2.37
최선의 이야기	1.46	2.56	3.00	2.48

종속변인의 점수 범위는 0점부터 5점.

가장 이해가 낮은 단계가 0점, 가장 이해가 높은 단계가 5점.

( ) 는 실험조건.

실험조건에 따라 아동의 반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F(1,36)=38.22, p<.0001$ 로서 두 영역에서 모두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은 자유놀이나 최선의 이야기만들기와 같은 낮은지원의 조건에서보다 유도모방이라는 높은 지원의 조건에서 더 높은 단계를 통과하였다(표3 참조). 특히, 연령집단과 실험조건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2,36)=4.98, p<.01$ ), 높은지원의 조건과 낮은 지원조건에서의 아동들의 수행의 차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분류과제

사람분류과제의 결과는 아동들의 연령에 따라 사용하는 범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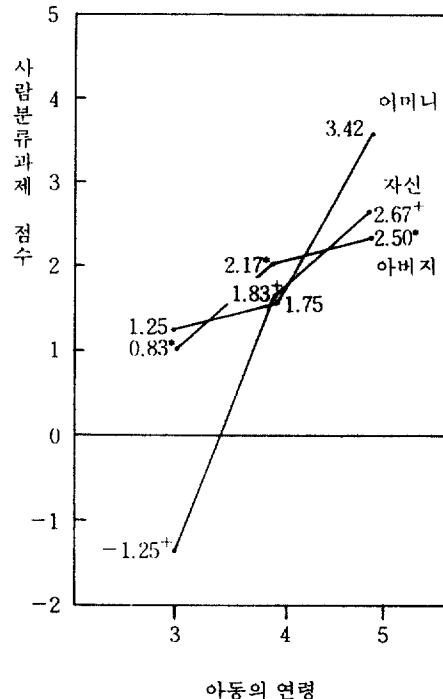


그림 2. 아동의 나이와 사람분류과제와의 관계



아동의 성이나, 분류할 사람의 성은 범주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나이(3)×성(2)×분류대상(3) 모델의 반복측정 변량분석에 의하면, 아동 자신의 분류에서는  $F(23, 48)=6.08, p < .004$ 로서 나이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들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자신을 다른 범주로 분류한다고 하겠다. 사후검증에서는 3세와 4세사이의 차이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세와 5세 사이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류할 때에는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나이보다 성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범주의 사용횟수도 증가하였다(그림2 참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하나의 범주를 일관성있게 사용하리라는 가정은 성범주에서는 입증되었으나, 3세 이후에는 나이범주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나이범주에서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

아동의 성차에 의한 범주화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표4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는 남아가 모든 연령에서 여아보다 성범주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세연령의 아동들이 아직 범주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지 못하므로, 이 연령을 제외한다면 남녀의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나리라고 본다(표4 참조).

표 4. 아동의 성과 나이에 따른 사람분류과제의 점수분포

사람분류과제	아동의 성	아동의 나이			평균
		3	4	5	
자신	남	-0.83	2.17	2.83	1.39
	여	-1.67	1.33	2.50	0.72
어머니	남	1.00	2.83	4.17	2.67
	여	1.50	0.83	2.67	1.6
아버지	남	0.50	3.17	2.50	2.0
	여	1.17	1.17	2.50	1.61

종속변인은 사람분류과제의 점수.

점수분포는 -5부터 +5까지.

-점수는 나이로 분류, +점수는 성으로 분류할 경우.

지식순서과제와 사람분류과제와의 관계

아동의 지식순서과제에서의 수행과 사람분류과제에서의 수행에는 복잡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분류할 때에 가장 지식수준과 상관이 높았으며, 아버지를 분류할 때는 나이변화과제의 모방조건과 자유놀이조건, 그리고 성불변과제의 자유놀이조건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를 분류하는 과제는 지식수준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5 참조).

표 5. 지식순서과제와 사람분류과제와의 관계

지식순서과제	사람분류과제		
	자신	어머니	아버지
나이변화(모방)	.30**	.13	.27*
성불변(모방)	.29**	.11	.19
나이변화(자유놀이)	.26(48)	.23(48)	.33(48)
성불변(자유놀이)	.37(51)**	.15(51)	.35(51)**

\* $p < .05$  \*\* $p < .01$  ( ) 피험자수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 아동의 나이와 성, 두가지 범주에 대한 이해의 발달을 동시에 보며, 지속적인 변화를 보기 위하여 3세부터 5세 아동들에게 Van Parys가 사용한 나이변화에 관한 과제와 성불변에 대한 과제를 실시하였고, 이 두 범주를 사용하여 어떻게 사람을 분류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사람분류과제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두 범주에 대한 이해는 학령전기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발달하며, 그 발달의 양상은 두 영역에서 서로 비슷하나, 나이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조금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역할에 대한 이해의 발달 면모는 나이영역에서 3명, 성영역에서

1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Guttman척도에 부합되어 발달에는 순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령전 3년의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나이와 성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는 매우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3세경에는 아직 인형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3세 반정도에는 아이, 여아동의 역할행동은 이해를 하였으나, 어른과 아이와의 관계, 남아와 여아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나 여아를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4세경에는 아이의 역할과 연관지어 어른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남아의 역할과 연관지어 여아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다. 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이에 따른 차이를 여러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여러가지 외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Kohlberg(1966)는 아동이 처음에는 사람의 크기 차이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이의 차이를 알게 된 후에 성의 차이를 알게 된다고 하였다. Van Parys(1983)의 연구에서도 성역할에 대한 이해보다 나이역할에 대한 이해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의미있는 차이가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는 나이역할 이해가 성역할 이해보다 빨리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달의 차이는 Van Parys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아동들이 성역할보다 나이역할을 빨리 이해한다는 사실은 외국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두역할의 이해 차이가 외국의 연구에서 보다 더 크다는 것은 문화적인 차이에서 올 수도 있는 결과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나이에 따라 서열이나 대우가 달라질 뿐 아니라, 언어에도 존대말과 반말의 차이가 분명하여 많은 아동들이 어려서 부터 존대말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형제끼리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형, 언니, 동생과 같이 나이에 따라 분류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한국의

아동들은 일찍부터 어른과 아이의 차이를 터득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각기 다른 실험조건하에서의 아동들의 수행의 차이는 놀라울 정도였는데, 특히 아동의 연령이 많아 질수록 실험조건에 따라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동의 나이가 증가 할수록 자유놀이나 최선의 이야기 같은 낮은 지원의 조건에서는 그들의 나이, 성역할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아동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표현되기 위하여는 높은 지원에서의 실험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피험자 중 많은 아동들, 특히 어린 아동들은 자유놀이를 하기 위하여 실험실에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하였으며, 비록 자유놀이를 하겠다고 한 큰 아동들도 혼자 남겨지면 장난감은 건드리지 않고 두리번 거리거나 아예 방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자유놀이를 한 아동은 전체 72명 중 43명이었으며, 최선의 이야기를 한 아동은 51명으로 이러한 방법으로는 아동의 발달 수준을 파악하기가 힘이 들었다. 따라서 낮은지원조건은 한국아동들에게는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유도모방조건에서는 아동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수행을 보였지만, 한국아동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성불변과제의 모방조건에서 5단계를 통과한 34명 중 21명이 그 단계를 이해하고 있지 못함이 모방 후의 질문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모방을 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다른 나라 아동들에 비해 한국아동들이 모방을 좀 더 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외국의 많은 학자들은 아동들이 자신의 수준에 따라 모방을 함으로 모방을 통하여 그 아동의 인지발달이나 언어발달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Ervin-Tripp, 1973). Van Parys(1983)의 연구에서도 연구대상 아동들이 한국아동과는 대조적으

로 5단계의 이야기를 모방은 하지 못하였지만 질문에서는 그 단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Van Parys는 이들을 따로 4 1/2단계로 구분을 지었다. 따라서 모방조건이 자유놀이나 최선의 이야기 조건보다는 이해의 수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수준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도 병행되어져야 된다고 본다.

아동이 사람분류에 사용하는 범주는 그 범주에 대한 아동의 지식과 상관이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상관을 보였으나 그 양상은 상당히 복잡하였다. 아동이 나이와 성 범주를 이해하게 되면 분류할 대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한가지 범주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아동의 나이가 많아 질수록 한가지 범주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리라고 예측하였다. 특히, 아동이 자신을 분류할 때에는 부모와의 나이 차이를 의식하여 나이범주를 더 많이 사용하고, 부모를 분류할 때에는 부모간의 성차를 의식하여 성범주를 더 많이 사용하리라고 예측하였으나 이러한 예측은 3세 아동에게서만 나타나고 4세와 5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이 자신을 분류하기 위하여서는 3세에서는 나이범주를 더 많이 사용하였지만 4세, 5세에서는 성범주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였고, 어머니나 아버지를 분류할 때에는 모든 연령에서 나이범주보다 성범주를 선호하였으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성을 사용하는 빈도도 많아졌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아동들이 3세 이후에는 성범주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나이와 성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겠다. 부모 설문지에 의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자과 여자를 구별시키는 것보다 훨씬 일찍 어른과 아이를 구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아이들에게 존대말을 가르치기 시작한 평균연령은 여아일 경우 25개월이었고 남아는 35개월인데 비해, 성유형 행동을 가르치기 시작한 연령은 여아가 43개월이

었고 남아가 45개월이었다. 이와같이, 4세경이 되면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성유형의 행동을 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의 이러한 태도가 이시기 이후의 아동의 성범주 사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3세에서 5세사이의 아동들에게는 나이에 대한 이해가 성에 대한 이해보다 좀 더 빨리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의 개념도 충분히 발달된 그 이후 연령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즉, 새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성의 범주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아동들이 일단 두 범주에 대한 지식을 어느정도 충분히 습득한 후에 어떤 범주에 더 관심을 갖고 각 사람들에게 그러한 범주를 적용하는 지를 본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 아동이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초기에 사용하는 자연적 범주이며 동시에 사회적 범주인 나이와 성에 대한 이해의 발달을 살펴 보았으며, 이러한 범주를 사람을 분류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석하였다. 나이와 성이라는 기본적 범주의 발달을 이해함으로써, 본 연구가 앞으로 아동들이 더욱 복잡한 사회범주역할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적절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Bem, S. L. (1984). *Genital knowledge and gender constancy*. unpublished manuscript.
- Bem, S. L. (1988). *Rethinking children's thinking about gender: How inevitable is childhood gender traditionalism?* unpublished manuscript.
- Bertenthal, B. I. (1981). The significance of developmental sequences for investigat-

- ing the what and how of development. In K. W. Fischer (Ed. ), *Cognitive development : New direction for child development* (No. 12). (pp. 43-54). San Francisco : Jossey-Bass Inc. , Publishers.
- Brainerd, C. J. (1978). The stage question in cognitive-developmental theory. *Th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 173-213.
- Bruner, J. S. (1957). On perceptual readiness. *Psychological Review*, 64(2), 123-152.
- Case, R. (1985). *Intellectual Development : Birth to adulthood*. New York : Academic Press.
- Case, R., & Khanna, F. (1981). The missing links : Stages in Children's progression from sensorimotor to logical thought. In K. W. Fischer (Ed. ), *Cognitive development : New direction for child development* (No. 12). (pp. 21-32). San Francisco : Jossey-Bass Inc. , Publishers.
- Edwards, C. P. (1984). The age group labels and categories of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440-452.
- Ervin-Tripp, W. M. (1973). Imitation and structural change in children's language. In C. A. Ferguson, & D. I. Slobin (Eds. ), *Studies of child language developemt*.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Fischer, K. W. (1980). A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 The control and construction of hierarchies of skills. *Psychological Review*, 87, 477-531.
- Fischer, K. W. (Ed. ). (1981). *Cognitive development : New direction for child development* (No. 12). San Francisco : Jossy-Bass Inc. , Publishers.
- Fischer, K. W., & Lazerson, A. (1984). *Human development : From conception through adolescence*. New York : W. H. Freeman and Company.
- Fisher, K. W., & Watson, M. W. (1981). Explaining the Oedipus Conflict.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No. 12). San Francisco : Jossey-Bass Inc. , Publishers. p. 79-92.
- Flavell, J. H. (1971). Stage-related properties of cognitive development. *Cognitive Psychology*, 2, 421-453.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 The Basic Books.
- Green, B. F. (1956). A method of scalogram analysis using summary statistics. *Psychometrika*, 1, 79-88.
- Kagan, J., Mount, R., Hiatt, S., Linn, S., Reznick, J. S., Richman, C. L., & katz, M. M. (1981). *The second year : The emergence of self-awareness*.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Kohlberg, L. (1966). A cognitive-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sexrole concepts and attitudes. In E. Maccoby (Ed. ),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pp. 82-173),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Kratochwill, T. R., & Goldman, J. A. (1973).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judgement of age. *Developmental Psychology*, 9, 358-362.
- Kuhn, D., Nash, S. C., & Brucken, L. (1978). Sex role concepts of two and three-year-olds. *Child Development*, 49, 445- 451.
- Lewis, M., & Brooks-Gunn, J. (1979). *Social*

- cognition and the acquisition of self*. New York : Plenum Press.
- Livesley, W. J., & Bromley, D. B. (1973). *Person percep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London : Wiley.
- Looft, W. R., Rayman, J. R., & Rayman, B. B. (1972). Children's judgement of age in Sarawak. *Journal of Child Psychology*, 86, 181-185.
- Martin, L. L. (1985). *Categorization and differentiation*. New York : Springer-Verlag Inc.
- Piaget, J. (1928). *Judgement and reasoning in the child* (M. Warden, Trans. ).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Piaget, J. (1969). *The child's conception of time*. (A. J. Pomerans, Trans. ). New York : Ballantine Books.
- Piaget, J., & Inhelder, B. (1974). *The child's construction of quantities : Conservation and atomism*(A. J. Pomerans, trans. ).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Pipp, S., Jennings, S., & Fischer, K. W. (1987). Acquisition of self and mother knowledge in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23, 86-96.
- Pratt, M. (1975). *Developmental study of person perception and attributions of social causa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Slaby, R. G., & Frey, K. S. (1975). Development of gender constancy and selective attention to same-sex model's. *Child Development*, 46, 846-856.
- Van Parys, M. M. (1983). *The relation of use and understanding of sex and age categories in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Denver, Colorado.
- Watson, M. W. (1981). The development of social roles : A sequence of socialcognitive development. In K. W. Fischer (Ed. ), *Cognitive development : New direction for child development*. (No. 12. ). (pp. 33-41). San Francisco : Jossey-Bass Inc. , Publishers.
- Watson, M. W., & Fischer, K. W. (1977). A developmental sequence of agent use in late infancy, *Child Development*, 48, 828-836.
- Watson, M. W., & Fischer, K. W. (1980). Development of social roles in elicited and spontaneous behavior during the preschool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483-494.
- Wohlwill, J. F. (1973).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New York : Academic Press.
- Yarrow, M. R., & Campbell, J. D. (1963). Person perception in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14, 57-72.

## **The Social Role Development in Korean Preschool Children**

**Namhee Shim Woo**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Dongduck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children's learning process of age and gender, two of the most apparent social rol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72 Korean preschool children aged between three to five. They were examined to test a developmental sequence and horizontal decalage in understanding of the roles. Two five-step knowledge sequences of age growth and sex constancy were provided utilizing skill theory (Fischer, 1980). Each step in a sequence had different stories of age or sex role with increasing cognitive complexity, but the two sequences were equivalent in complexity. The children were tested under two different assessment conditions: high support condition of elicited imitation and low support condition of free play and the best stor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understanding of age and sex roles develops through the predicted five-step sequences. Second, the understanding of age role seems to develop earlier than that of sex role although the developmental patterns of the two roles are similar. Third, variations in the children's performances, under different conditions, are dramatic, especially for the older children.